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예비자 교리 교안 11 (1 월 28 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강림

1. 예수님 부활, 승천, 성령강림 사건의 시간적 개념

- ◆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 금요일 - 유대인 축제인 과월절 전날
- ◆ 돌무덤에 급하게 시신이 모셔진 상태로 3 일이 지남(금, 토. 일)
- ◆ 일요일(유대교달력상 주간 첫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 ◆ 부활절은 원래 유대인의 축제 과월절을 기준으로 유대인 달력을(음력과 유사) 사용해야 하나 서양달력인 그레고리력과 차이로 인해 교회가 대중의 과월절 시기를 그레고리력에 맞추는 결정을 함
- ◆ 현재 예수부활대축일은 춘분 지나 다음 오는 만월(15 일) 지나오는 첫 주일
- ◆ 이렇게 매년 정해지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재의 수요일이 또 정해짐 - 부활주일에서 역으로 7 번째 수요일
- ◆ 사순절 - 사순기간을 일일이 세어보면 46 일정도 되는데 주일 6 번은 주님의 날 이므로 사순기간에서 빠져 사순기간이 40 일 됨
- ◆ 예수승천대축일 - 부활주일로부터 6 번째 목요일, 즉 40 일째 되는 날에 기념된다. 그러나 이날이 의무적 축일이 아닌 나라에서는 다음 일요일에 지내며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 ◆ 성령강림대축일 - 원래 유대인 축제인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사건을 기리는 날이므로 과월절 후 50 일되는 날 축일 지냄 현재 교회는 부활 후 7 번째 주일날 지냄

2. 예수님 부활, 승천, 성령강림 사건의 공간적 개념

- ◆ 과월절 축제를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 도성 안으로 들어오셨다가 과월절 음식을 드시고(최후의 만찬 - 목요일) 잡히셔서 금요일날 십자가형 사형에 처해지시고 예루살렘 근처 돌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심
- ◆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 다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놀라운 이적에 실신하거나 도망간걸로 성경은 기록
- ◆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제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남으로서 확인됨
- ◆ 승천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갈릴레아의 어떤 산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
- ◆ 성령강림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모였다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

3.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강림의 의미

- ◆ 부활의 의미 -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심의 의미가 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밤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생명과 구원의 빛 속에서 부활(새롭게 태어남)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 ◆ 승천의 의미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영광스럽게 하늘에 오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임을 즉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 또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선포 사명을 실천해야 함을 의미한다.
- ◆ 성령강림의 의미 - 교회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성령에서 비롯(예수님의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로 전환).
- ◆ 성령에 따른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용서의 삶이다. 또한 바오로사도 말씀처럼 신앙심을 유지시키고 교회를 유지시키는 영적 힘이며, 사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강한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내적 힘이다.
- ◆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요한 복음 20 장
- ◆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 코린토 1 서 12 장
- ◆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 사도행전 2 장